

금주일언 일정한 것이 있는 것도 두 없어도 높고 있는 것도 떨어지며, 만나면 이별이 있고, 헤어지면 죽음이 있다
(법규경·무삼봉 9절)

東大新聞

본 편집인 송석구
주 편집인 송석구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260-3491 ~ 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 707 ☎(77)70-2057

제 1214 호 (주간)

1996.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6년 (불기 2540년) 12월 2일 (월요일)

1

교육개혁시리즈

⑨ 전공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은 각 전공 및 학과의 고유한 학문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질적향상과 학생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편성됐다.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과정 간의 학문적 연계성과 발전성을 제고해 구성된 전공교육과정의 교과목은 학부 및 계열공통과목, 기초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부 및 계열 공통과목은 학생들이 추후에 선택할 전공과 관계없이 이수하고 나면 전공으로 인정받게 될 과목이다. 기초교육과목은 1, 2학년 과정에 개설되는 전공 및 학과의 기초적인 과목으로 3학년부턴 선택하게 될 전공을 탐색하는데 필요하므로 폭 넓게 이수하는 것이 좋다.

전공교육과목은 심화된 전공 분야를 학습하는 것으로 3, 4학년 과정을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어 복수전공 및 조기졸업이 용이하다.

전공 필수 제도를 폐지하고 신교육제도로 도입된 전공회차 이수학점은 각 학부 및 대학별로 졸업최저이수학점의 1/4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졸업최저이수학점이 1백40학점일 경우 36학점을, 1백20학점일 경우 30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학년별 교과목 이수기준을 살펴보면 제1전공(주전공) 및 제2전공(부수전공)의 전공교육과정 중 3, 4학년에 개설된 전문교육과목에서 전공최저이수학점의 50%인 15학점에서 1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된 전공교육과정은 여러 특징이 있다. 전공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면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공인정교과목 신설,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이며 소속학과장 및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은 학생은 대학원의 교과목을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학부나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원학점 취득제도도 도입됐다. 또한 학기당 평균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 4학기 이상 이수자는 본교의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각 대학에서 학점의 학점으로 인정되는 타 대학 이수학점 인정제도도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김기영 기자)

‘교원 업적 평가’ 실시

교수 승진·재임용·연구비지급등에 활용

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부위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교원업적평가가 실시된다.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조 제1조에 의하면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교원의 승진임용, 재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전체임정은 지난 3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개인연구업적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업적, 연구 및 창작업적, 봉사 및 기타업적 등 세부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것은 단과대학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결국 평가자료는 우수교원의 선정 및 지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와 동시에 승진, 재임용, 연구비 지급 등 교수의 연구활동영역과 앞으로의 진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평가가 교육여건 조성 과 교육·연구의 실적 향상이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본교 교수들 사이에서는 ‘형식에 치우친 연구조장’이란 여론도 일고 있다.

지난 28일 90주년기념 문화관에서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주

최로 열린 ‘교수실문 조사보고 및 토론회’에서 연구업적평가제 설문조사 결과보고에서 총 1백83명의 응답자중 96%가 연구업적평가제를 알고 있으나 그 가운데 80%의 교수들은 이것을 ‘형식에 치우친 연구조장’이라 답했으며 그외 18%가 ‘연구의욕을 더욱 고취시킨다’며 연구업적 평가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사과대의 한 교수는 “발표한 논문의 수가 적다고 해서 그 교수가 연구를 소홀히 했다고 볼수는 없다”며 “논문을 발표할 학회지에도 등급을 매겼다는

데, 같은 글을 A등급의 학회지에 발표하면 A등급의 논문, C등급의 학회지에 발표하면 C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예상치 못하게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 연구교류처(처장=임기중·국어국문)의 한 관계자는 “1년내내 전체적인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의견교환에 있어 충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동계수련법회 실시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은 '96년 동계수련법회를 오는 6일과 7일 양일간 경기도 의왕시 정각사에서 실시한다.

이번 동계수련법회에서는 이법산 정각원의 좌선실수 강의 및 좌선실수를 중심으로 20여명의 교직원 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수동정

▲이갑득(화학)=오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천연물 중 향산화 물질의 검출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발표자 미국방문.

▲이석장(영문학)=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미국방문.

▲이해득(응용생물학)=관공을 전공하는 대학원학생 교수의 국가육안기관 전문가 모인 한국공학학회의 회장으로 지난 2일 당선.

▲이민원(응용생물학)=지난 10월 30일 한국공학회 회장으로 당선. ▲이태희(경제학)=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미국노동부에서 노동통계 연구자 12월 15일부터 97년 2월 10일까지 연수

▲전호연(불교학)=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2월 7일부터 1년간 해외 연수

▲이승열(무역학)=일본동양대학 아시아 아메리카 문화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한일 공동연수 세미나에 97년 1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참석

알림
이번 제1214호는 96년도 2학기 동대신문을 증간합니다. 제1215호는 97년도 1월1일자로 발행되며,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경주캠프 총학 최진호·정해영 조 당선

공약으로 학부제 해결·도서관 개선 등 내세워

경주캠퍼스 제14대 총학생회장선거가 지난달 28일 치러진 결과 최진호(선신3)·정해영(국경3)조가 당선됐다.

58.7%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결과를 알아보면 총 유권자 5천6백95명 가운데 3천3백45명이 투표(무효표:1백78표, 오차 9표)를 했으며, 이중 편상규(정보3)·이병현(철3)조가 1천3백66표를, 최진호·정해

영조가 1천7백93표를 얻어 최진호·정해영조가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최진호·정해영조의 공약사항은 △학부제문제 해결 방안 제시 △도서관개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스타 플랜 확보 △재단 전입금 확보 등이다.

이번 제14대 총학생회장선거는 선거기간 중 등록서류 분실, 제13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선위 위원들의 집단사퇴 등 여러문제점을 드러낸 채 마무리 됐다.

또한, 당선된 최진호·정해영조는 운동권 학생회를 비판하는 등 비운동권을 주장하고 있어 새로 시작되는 총학생회의 사업방향에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여진다.

‘교수실문조사 보고 및 토론회’ 개최

교수들 의견 공개화 시킨 자유 토론의 장 마련

교수회(회장=김익기·사회학)에서 개최한 ‘교수실문조사 보고 및 토론회’가 지난 28일 교수, 학생, 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수거된 1백83부를 분석한 교수회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복지문제, 연구 및 강의환경, 학교행정 및 제도, 교수회 등에 관한 것이었으며, 설문조사 결과보고와 지정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용에 관해 전임강사와 조교수의 75%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불만인 교수 가운데 75%가 15%에서 20%의 인상을 요구했다. 교수식당에 관해서는 사용가 가운데 90%가 불만을 표시했으며 불만요인은 음식의 질과 학생들의 출입등으로 나타났다.

신규교수 임용제도에 관해 현 제

도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33%였으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19%였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학과교수의 의견이라고 83%가 답했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만이 만족을 표시했으며 불만족의 이유로는 첫째가 장서의 부족 둘째 전산화의 미비 셋째가 대출제도의 문제를 꼽았다. 도서관의 이용도를 보면 (자주)이용한다가 응답자의 25%, (별로)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75%로 나타났다. 교수회와 관련해 후생복지위원회와 교육개선연구위원회, 교원확립수호위원회의 설치에 응답자의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에 대해 김익기 교수회장은 “교수들의 의견이 결집되어 공개화된 것 자체에 상당한 의의를

두다”며 “이런 계기로 교수들의 학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논문심사와 세미나로 항상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준 교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찬경’ 번역본 완간

역경원(원장=김성규)은 대장경 시리즈 광찬경 원본 10권을 오는 9월 말에 한 권으로 번역, 완간한다.

한편, 필교에서 말하는 지와 덕을 나타내는 금강계의 비법을 설명한 ‘유가대교광경’과 소송불교 한 분파인 설일체유부의 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설일체유부비나약사’가 이번달 안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보리수

‘사람의 욕심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를 살려줄 수 없다. 사람의 욕심이란 비참하고 짧으며 고뇌로 영겨 있다. 때와 나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으며, 늙으면 죽음이 오는다. 실로 삶이 있는 자의 운명은 이러한 것이니라’(소타니파타) 죽음의 불안은 초월하려했다는 점에서 종교와 철학은 동일선상에 있다. 동서고금의 철학적 성찰 가운데 불교만큼 죽음의 문제에 천착한 가르침은 없다. 싯달타 태자의 출가동기였으며, 큰스님들이 욕심을 걷고 찾으려던 정도 이 죽음의 불안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어렸을때 죽음을 알지 못했다. 나이들면서 슬픈 죽음을 체험하였고, 결국 나도 가진다하고 체념해 버린다. 나도 지천명을 넘기면서 자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허무의 종말로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새로운 삶의 영장선상에 있는 지점일 뿐이라고 본다. 물론 죽음은 모든 것을 잊아 간다. 살아 있는 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한 단절이며 결별이다. 따라서 죽음은 정제없는 불안이며, 허무의 심연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진지해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공부에 열중할 필요가 없다. 영 10만년쯤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존을처럼 짧기 때문에 그 주어진 순간 매사에 충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할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 질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인의 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죽음을 의면하는데 있다. 죽을 사(西)라고 해서 4종을 기피한다. 죽는다는 말을 했을 때 죽었다고도 한다. 그래서 죽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 불안마저도 내 안으로 부딪히면서 그 불안마저도 내 안에 내화시켜야 한다.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연습이다. 혹은 죽음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내 차례는 아니겠지 하는 안도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리석음을 나무라셨다. 목이 마를때 우물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목이 마르지 않을때 우물을 파서 예비하는 것이 도리이다. 젊은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다.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죽음을 예비할 때이다.

죽음의 사색

죽음은 새로운 삶을 영장선상에 있는 지점일 뿐이라고 본다. 물론 죽음은 모든 것을 잊아 간다. 살아 있는 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철저한 단절이며 결별이다. 따라서 죽음은 정제없는 불안이며, 허무의 심연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은 진지해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공부에 열중할 필요가 없다. 영 10만년쯤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존을처럼 짧기 때문에 그 주어진 순간 매사에 충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을 생각할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 질 수 있는 법이다. 한국인의 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죽음을 의면하는데 있다. 죽을 사(西)라고 해서 4종을 기피한다. 죽는다는 말을 했을 때 죽었다고도 한다. 그래서 죽음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그 불안마저도 내 안으로 부딪히면서 그 불안마저도 내 안에 내화시켜야 한다. 실존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연습이다. 혹은 죽음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내 차례는 아니겠지 하는 안도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리석음을 나무라셨다. 목이 마를때 우물을 파는 것은 어리석은 길이다. 목이 마르지 않을때 우물을 파서 예비하는 것이 도리이다. 젊은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다.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죽음을 예비할 때이다.

정병조

문과대 인문학부 교수

신입생 모집 입시일정 확정

오늘 8일부터 특차원서 접수

97학년도 신입생 모집 입시일정이 발표됐다. 특차모집 원서접수는 오늘 8일부터 10일까지이며 정시모집은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세부시행	일정
특차모집	원서 교부	'96.11.25(월)~12.10(화)
	원서 접수	'96.12.8(일)~12.10(화)
	예비 소집	'96.12.11(수), 12(목)
	면접 고사 (실기고사)	'96.12.12(목)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96.12.17(목) 이전
	원서 교부	'96.11.25(월)~12.20(금)
	원서 접수	'96.12.18(월)~12.20(금)
	예비 소집	'97. 1. 3(금)~1. 4(토)
	면접고사 및 사법제	'97. 1. 4(토)~1. 7(화)
	인·적성 검사	'97. 1. 5(일)~1. 7(화)
편입학전형	예·체능 실기고사	'97. 1. 4(토)~1. 7(화)
	합격자 발표	'97. 1.25(토) 이전
	등록	'97. 1.27(월)~1.29(수)
편입학 일정	미등록자 출원	'97. 1.30(목)~2.23(일)
	편입학 일정	'97. 1.15(수)~2. 7(금)

동대신문사 학술상 문학상 모집광고

◆제34회 학술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 ①인문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②사회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③자연과학상: 본상 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요령: 2개 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제출기간: 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260-3491~2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 ①시 부문: 3천 내외,
 - ②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 ③평론부문: 2백자원고지 60매내외
-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6년 11월11일~12월10일까지
- ◆시상
 - ①시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 ②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③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1997년 1월1일자 본지 지상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마가이바!
동대신문사 학술상·문학상에 도전하십시오.

비밀번호!

동대신문사

이제는 환경이 시사문제다



신에섭
환경전문가

시사논단 환경문제와 환경윤리의식

(HCs) 등이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그런데 이 오존은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는 가뭄이나 천신 등의 자각증세와 시력감소, 시각장애, 두통, 의식불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직 실험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오존농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외국 역학조사로 입증된 바도 있다.

올 겨울에도 자동차 배기가스는 물론 난방시설 배출가스로 심각한 오존오염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신설,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일정 수준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경보를 발령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존다량 발생지역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는 있으나 오존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80년대 말부터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질오염의 문제는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되어온 오염물질들의 무차별 방류로 인해 점차 심각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염색폐수 등으로 인한 한탄강 및 임진강의 극심한 수질오염과 거대규모의 인공호수인 사회호의 수질오염 등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들이었다.

한탄강 및 임진강의 수질오염은 지난 80년대초부터 임진강 상류지역인 한탄강, 영평천, 신천 등지에 염색, 피혁업체가 잇따라 입주하고, 축사 등의 급증과 미처리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발생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은 염색, 피혁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임진강의 수계에 위치한 업체가 3백8개로 해마다 장마철 직전부터 우천시에 독성폐수를 무단방류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킨 것이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 용인군 등 1도 2시 2군에 이르는 광대한 간척지를 개발해 농·공업용지의 확보와 관광위락단지 조성 등의 목표로 1982년 시작된 시화지구 개발사업중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조성된 인공호수인 사회담수호의 수질이 크게 악화되어왔다.

이 같은 원인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미처 처리된 생활하수나 사회호 유역내의 각종 공업폐수의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에따라 임진강의 경우 염색, 피혁공장의 이전과 두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의 신설로 이를 개선하려는 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오염상황으로 볼 때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두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산업폐수의 무단방류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무시코 버리는 즉, 주방, 화장실, 목욕탕, 세탁기 등에서 쓰고 버리는 생활하수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한강의 경우를 볼때 폐·하수의 오염량중 72%가 생활하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의 주범은 어느 한부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환경보전에 대한 사고와 윤리의식 등의 환경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만약 제대로된 환경윤리를 갖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환경보전 의식의 함양과 언제 어디서나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화된 생활방식으로서 전환, 즉 환경윤리의식으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속에서 더 나아가 기업활동에까지 환경윤리의식이 뿌리내린다면 지금의 환경오염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현실로 볼 때 단시일에 이루어질수는 없지만 우선 얼마전부터 실시된 환경신문고제도(오염행위 등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에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오염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환경보전 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환경윤리에 앞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라도 현재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여론과 언론의 동행

이번 호를 통해 유난했던 한학기를 더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승화시키고자 본지에 대한 독자여러분들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았다. 20자 내외의 글들속에는 묵직한 질책, 따뜻한 격려등 사려깊은 관심들이 백백히 들어있었다.

'한학기 수고했다'는 격려를 필두로 '대학의 날카로운 지성을 계속 대변해달라'는 충고, 노라가사와, 시 등을 인용한 재치있는 질책과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늘렸으면 하는 바램 등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매학기 세미나를 통한 자체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계획을 착실히 준비했다고 하지만 소홀했던 점이 분명 있고 여지없이 그 점을 간과하지 않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힘이 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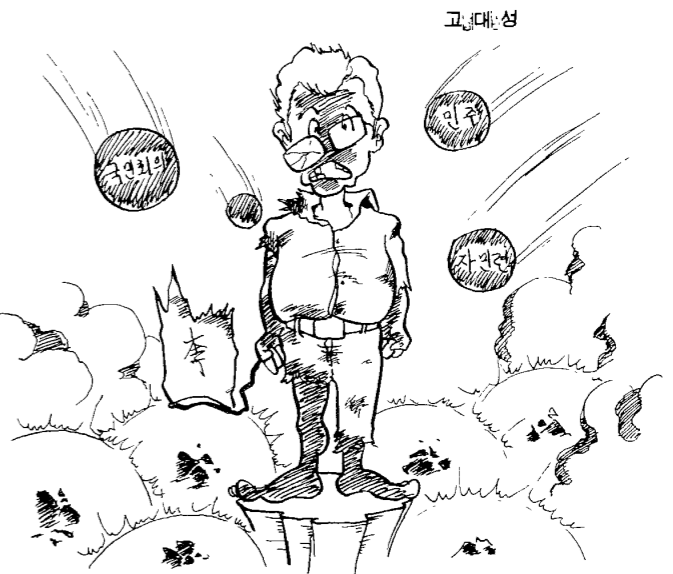
그러나 여기서 좀더 수위가 높다고 보아지는 몇몇 비판은 자칫 판단에서 이성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다. 크게 주목되는 비판의 논의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중립을 지키라는 질책과 점점 보수화 되어간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두 지적이 모두 아픈 곳을 찌르기에 충분히 무의식적인 방어본능이랄 수도 있으나 먼저 중립을 지키라는 지적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또는 원색적인 글들은 분명 도를 넘어 비방오류밖에 볼 수 없다. 경주캠프의 경우 그간 일련의 대학 운동체력의 위기적 측면과 때를 같이한 이번 총학생회선거는 학생들의 운동권, 비운동권이란 단순 이분법적 사고에서 기인된 학생회와의 괴리감이 뚜렷이 드러났다. 이에 본지는 대학인이 지나야 할 비판과 저항의 태도를 알리려는 대학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물론 여기서 본지 역시 함께 나타난 괴리감을 완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것을 두고 '동대신문은 좌파의 대변자인가?' '공정성있게 써라. XX들이 등의 원색비방은 본지의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목소리가 한쪽 후보의 편을 들고 다른쪽을 비방했다는 극에서 오는 억측으로 대학언론으로서의 이성을 의심케 한다.

다음으로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언론사로서 보수적이라는 지적은 진정 대학의 지성을 선도하고 대변했는지 하는 반성에 채찍을 가하는 충고로서 받아들여지고자 한다. 분명 우리는 대학언론으로서의 보수란 것이 그 임무를 소홀히 할때 나타나는 나태함과 같다는 것을 각인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사회와 대학의 문제들에 대해 대학생의 시각에서 좀더 심도있고 짧은 비판을 통한 저널리즘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고자 '읽히는 신문'이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자! 이제 한학기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끊임없는 비판 의지의 충원으로 잇대어 지길 바라며 건필을 빌어 보자.

통국만평



고대성

벌써 성금 겨울이 다가오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은 불우이웃들에게는 더욱 출세된 느껴지는 연말연시다.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세사간으로 불우이웃들이 더욱 쓸만한 겨울을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불우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의 불씨를 잃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복지재단에 연락을 해온다. 작은 돈이지만 내 자식같은 소년소녀가장을, 내 부모같은 무의탁불우노인을 도울 방법을 없겠느냐고.

강태환

한국복지재단 홍보개발국장

◇ 사회성금 어디로 가나?

사전허가에 급급한 규제법 비리 가능성 소재

기부자·관련단체 사용내역 투명화 노력

서울의 가을은 짧다고들 한다.

얼마전 그렇지 않아도 짧은 가을을 더 짧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잔 겨울바람을 뽀뽀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모든 어린이들의 우상이자 은 국민들의 심금을 한 몸에 받아왔던 뽀뽀이 이상용씨의 후원금관련 비리가 그것이다.

불우이웃, 특히나 생명을 얻은지 얼마되지도 않아 숨쉬기조차 힘들어 꺼져가는 어린 생명들을 이용, 이들을 돕기 위해 작은 정성이나마 아끼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에 배신의 돌을 던진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년간 심장병 어린이들도 오면서 존재했는지도 모를 이씨의 조그마한 순수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함은 물론 사회복지기

관에도 크나큰 파장을 몰고 왔다.

유수의 사회복지기관은 물론 심지어는 작은 시설에 이르기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국복지재단도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실제로 이씨의 비리가 방송된 다음날 복지재단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가 없었다. '한국복지재단은 이씨와 무관한 기관인가', '사회복지기관에서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내는 후원금의 사용내역을 알고 싶다' 등이 이들의 공통된 질문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후원금을 고스란히 불우이웃들에게 사용한다'라는 말로 후원자들을 설득시키는 일을 빚기도 했다. 이런 대응으로 이씨사

건을 비롯 간간히 일어나는 사회복지기관들의 비리문제로 신뢰를 상실한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우리 불우이웃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고자 정성어린 사랑을 나누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불우이웃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진정으로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올바른 양심이·기분이 되어야 함은 물론 기부금품을 접수한 단체나 기관들은 접수된 기부금품의 사용내역을 기부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

이나 단체는 방송이나 언론매체와의 협의하에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부자 개개인에게 알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하고 71년 까지의 두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후 25년이나 지난 지난해에서야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관련법 제정이후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사·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기부금품 모집을 사전에 허가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도록 되어있지 모집된 돈이 쓰여지는 방법, 즉 재정이나 회계상태에 대한 사후감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 그러나 부정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이씨의 경우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기부금품 모집단체, 정부 등 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야 한다. 또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이나 물품을 기부한 이들이 자신들이 기부한 성금이나 물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부자나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서로 신뢰를 쌓아 보다 많은 불우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벌써 성금 겨울이 다가오고 우리 주위에 여전히 많은 불우이웃들에게는 더욱 출세된 느껴지는 연말연시다.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 세사간으로 불우이웃들이 더욱 쓸만한 겨울을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불우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의 불씨를 잃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복지재단에 연락을 해온다. 작은 돈이지만 내 자식같은 소년소녀가장을, 내 부모같은 무의탁불우노인을 도울 방법을 없겠느냐고.

강태환

한국복지재단 홍보개발국장

기술휴머니스트-쌍용

"인간을 위해 태어난 기술이
이제는 지구와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존재하는 것,
최후의 기술, 그것은 인간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83년 루게릭병으로
2년의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불굴의 의지로 죽음과 장애를 극복
지금은 우주의 신비에 가장 근접한 세계 제1의
천체 물리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을 위한 기초기술 개발, 쌍용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첨단산업.

그 뿌리인 기초과학 기술 연구 개발이 바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 개발이 가져다 줄 편리함 못지 않게,
그 기술이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깊어있게

생각하는 것 또한 '큰 기업'의 할 일입니다.

기술은 오직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기술휴머니즘' 정신으로 쌍용은 기초과학 기술의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연윤리 위원회 사전심의

아직도 표현의 자유는... 제한속의 자유보다 자유속의 책임을

지난달 6일로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 사라진지 5개월이 지났다. 사전심의의 보다 그럴듯한 공연윤리 위원회(이하 공윤)의 '비의무조항'으로 바뀐게 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전심의제도가 올해 96년은 어느해보다 갖가지 심의결재운동이 많았던 해였다. 개방화 물결에 한국은 선진국의 과소 비형대나 불법유통 등에 급속한 변모를 보였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만큼은 좀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그 나라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사전심의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심의의 담당하는 공연윤리 위원회는 영화, 만화, 공연, 영상매체, 출판 등의 언론출판등을 심의하며, 일부 폐지된 것도 비의무조항으로 실시하며, 그 기준에서 효용성까지 일괄적으로 못해 공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영화법·공연법·음비법을 들 수 있는데 이중 공연법의 경우 국제간 우의를 해칠 수 있는 미신을 승상 선

각 조작하는것 지속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등을 심의기준으로 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적용될때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음비법도 마찬가지다. 음비법은 사전심의가 철폐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부분에서는 컴퓨터 게임과 멀티미디어 CD-ROM까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심의를 한다.

한 예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는 공론에서 의무적 심의를 거치는 수백권의 소프트웨어를 일주일만에 제목이나 출처기록만 보고 심의판정을 내려 버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윤의 사전심의가 얼마나 효용력을 지닐까?

영화 사전 검열도 예외는 아니다. 영화의 경우는 최근 독립다큐멘터리 단체인 푸른영상 대표가 음비법으로 규제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사전검열 폐지 운동이 한창 벌어졌다. 현재는 사전 검열의 위험으로 인정받은 상태이나 아직 완전하다고 볼수는 없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완전등급제실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등급제는 이전의 영화사제가 아닌

각 영화마다 등급을 매겨 상영하고, 포르노와 같은 등급의 영화는 등급의영화 전용관에서 보도록 한다는 것인데, 등급문제에 있어 공윤측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완전등급제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소리도 높다.

그 뿐만이 아니다. 공정성있게 언론보도를 해야하는 TV방송도 그 위신을 잃어가고 있다.

매체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방송은 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지만 기구의 성격이 공론처럼 정부측 성격이 강해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방송이 나갈 경우 심의과정에서 부분 삭제 또는 사과문이 나간다. 하지만 이는 시청자가 판단할 일이지 알아서 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는 여론의 주장이 강하다.

만화도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빼놓을 수 없다.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화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여 작가들의 창조성과는 상관없이 사전심의되고 무시당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불법유통된 만화나 과다성적 표현의 만화는 규제되어야 타당하지만 이외에 다수의 만화들

이 예술성과 창조성에서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설과 같이 작가들의 표현의 자유나 철학들은 철저하게 배격된 셈이다.

현재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론이 내세우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판으로는 실제 행해지고 있는 사전심의 공정성이 떨어질까 않는다.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 문체부는 중앙행정 기관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를 심의하고 이들에 대해 판매금지 구별력 방송시간 제한 등의 실질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들 위원회는 삭제 수정 등의 권한을 가진게 되고 사전심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리다. 심의제도는 사전적 의미로 심의하고 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실시되는 심의제도가 이대로 나간다면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지금은 제한 속의 자유 보다는 자유속에 책임을 외칠때다.

(조인선 기자)

등약로

심판

"오늘의 날씨는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지난 28일 아침 뉴스시간 기상캐스터의 날씨예보는 온방풍의 쓸려온 기운을 정확히 보도하였다. 소위 좌파와 비권의 대결이었던 제14대 총학생회 선거는 유세전에서부터 동전의 앞뒤를 연상케할 만큼 대조를 보였다.

유세전을 본 학우는 '민중가요'와 '마카레'의 대결로 일축한다.

투표당일(28일) 오전 9시부터 두 후보진영의 운동권들은 로비를 오가는 학우들에게 투표를 권하는데 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지금은 바쁘거든요, 수업 마치고 와서 할게요"라는 학우들의 말에서 신세대의 탈정치화가 반영되는듯.

운동권과 학우들간의 이런 모습은 투표마감시간까지 반복되었다.

오후 7시30분 폐쇄된 원효관 4층, 개표를 위해 모인 양후보참관인 사이에는 "뜨거운 감자"를 안은 듯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였다. 공정한 개표를 위해 소강당 또한 차단되었고 룸 수색이 끝나고 들어선 실내에는 두 후보참관인을 중심으로 두리지어 앉은 공



간에 두리지어 앉은 두후보진영의 긴장감으로 팽배한 실내에는 긴장감 탓에 제열기를 뽑아내지 못하는 난로가 있었다.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개표는 부재자투표함을 개봉하려는 과정에서 부재자와 이부대의 선거인 명부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총대위원회에 놓고 온 명부를 가져오기 위해 전례에 없이 차단된 문을 여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져 열렬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로인해 후보자 등록서류 분실사건 이후 또다시 중신위의 역할면에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20여분 후 재계된 개표는 투표함이 하나의 개봉되면서 97년을 이끌어 갈 총학생회의 윤곽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막상막하를 보이던 개표현황은 자대와 상대에서 엄청난 표차이로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두 후보의 회비는 판가름 되어졌다.

1천7백93표로 '97년 총학생회'의 날개를 단 최진조, 정혜영조의 비상여부는 제15대 총학생회가 심판의 가능성의 잣대를 드리울 것이다.

(이성용 기자)

◆개정된 운전면허 취득시험

'따고 보자는 식'이제는 안 통한다 운전 제대로 배워 즐기지만 학원 횡포 심해



"어, 내일 국가고시 보러가야 하는데..."

술자리에서 투덜거리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는 대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국가고시는 사법고시도 행

정고시도 아닌 '운전면허시험'이다. 그러나 농담만 진담반으로 전해지던 '운전면허=국가고시'는 이제 실제상황이 되어버렸다. 내년부터는 합격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 정말 고시(考試)가 된 것이다.

경찰청은 기존의 학과시험(필기)과 코스와 주행 포함 가능시험(실기)으로 된 운전면허 시험과정을 ①학과시험, ②가능시험, ③연습운전면허 발급, ④응용학과시험, ⑤도로주행시험, ⑥운전면허증 발급과정으로 바꾼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새로 생긴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가 4km 정도의 도로를 30분내에 운전하는 동안 안전변경시험규준수여부등30여 가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단 응시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지난 운전자의 지도를 받으며 차량으로 10시간 이상 주행연습한 뒤 응용학과 시험에 합격해야만 도로주행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연습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응용학과시험은 차량과장시응급조치요령등20개 사항을 묻는 과정으로 도로주행시험과 마찬가지로 1백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에 현행제도에 따른 학과의 코스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제정하지 않아 응시자 수십만명이 혼란을 겪었으며, 경찰

청은 지난 20일 뒤늦게 '운전면허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한행 운전면허시험 제도 하에 코스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내에 지급처별 주행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학과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새 운전면허 시험제도에 따라 가능시험은 물론 도로주행연습, 응용학과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증이 교부된다.

내년부터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운전면허시험때문에 올해안으로 빨리 면허증을 따려는 응시자들이 운전면허 시험장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일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들은 배정영업과 홍보를 일삼고 있어 학원 교습생들의 불만은 높아만 가고 있다.

서울문정동에 소재한 M 운전학원에 22만원을 내고 특등반 분고 사회학과 한 여학생은 "아침 8시부터 1시간씩 지정교습을 받는 데2분정도 도착했다 고교생은커녕 차도 구경 못하고 돌아왔다"고 불만을



호소하면서 "그나마 지정교습은 나은편이고 자유교습은 하루종일 기다려야 겨우 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학원의 횡포는 최고 6시간 대기 10-20분 운전연습, 운전연습일 건너뛰기, 담임제 미실시 등으로 극심해 교습생들은 학원의 질적인 서비스를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운전면허학원의 한탕주의도 어느정도 있지만 응시생들의 일단 따고 보자는 태도도 크게 작용한다. 더 어려워지기전에 따라한다는 생각이 운전을 제대로 배우야한다는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운전학원의 온갖 횡포를 참고 견디는 보상식으로 면허증을 받은 운전자는 거리가 나섰음에 주춤거리게 마

련이다.

외국의 경우, 모든 주행을 매끄럽게 해도 운전석에서 문을 열고 내릴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불합격 사유가 된다고 한다. 운전의 기능보다 법규의 준수와 매너를 중시하는 외국의 운전면허시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운전면허시험이 이번거로워졌다. 운전면허시험이 정말 고시(考試)가 됐다고 투덜대기 전에 정면보다는 편법으로 면허를 따려는 응시생과, 악어새처럼 풍존하는 운전면허 학원을 피조여 보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자랑스러운(?)타이틀도 함께.

(김기영 기자)

세계경영이 만드는

큰나라가 보입니다

폴란드 FSO 현지차량인 Wall Ireneusz

← →

큰 나라 만드는 4739-7694

단순한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정진적인 여유를 키워 세계와 함께 나누고 함께 승리는 나라, 큰 나라입니다.

결코 먼 미래가 아닙니다

기승으로 느껴지는 큰나라, 큰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의 현지 채용인 10만명 - 세계곳곳에서 10만명의 현재인이 대우와 더불어 나라를 키워갑니다

폴란드 국영 FSO자동차사 인수 - 포천지를 비롯한 세계 언론에서 '그들은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천년의 꿈,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큰나라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인터넷 따라잡기 마지막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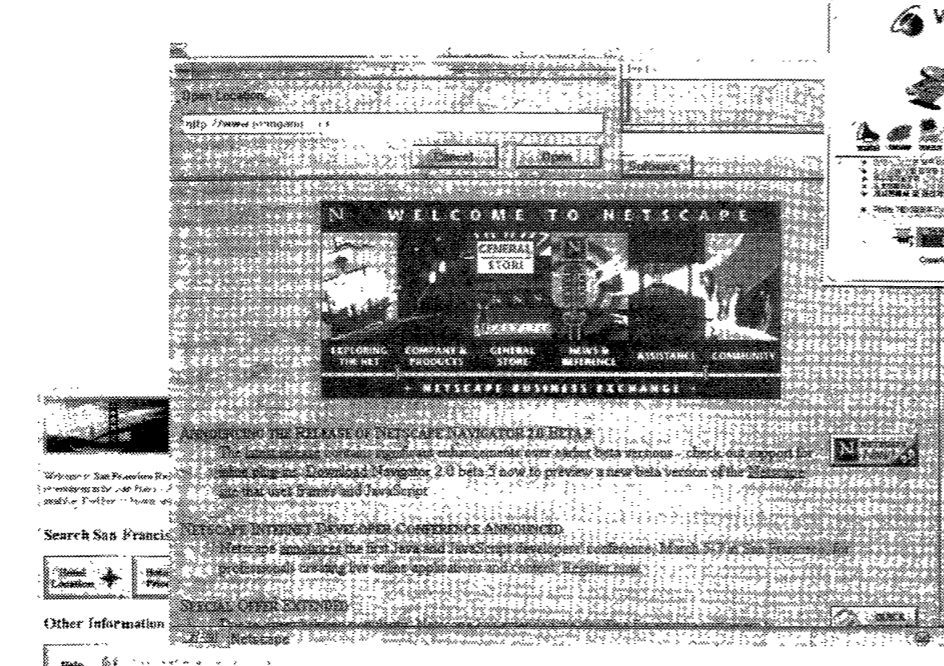
전자우편 그 해법을 찾아

‘인터넷의 꽃 전자우편’

물론, 인터넷은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하지만, 인터넷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원동력은 바로, 전자우편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중요한 문서들은 손으로 직접 배달하는 것을 보면, 인터넷이 거대해지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져서 그 신용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은 8비트 체계이고, 영어는 7비트이다. 그에 따라 각종 편지 쓰기 프로그램에서 우리들은 엄청난 혼돈을 겪고 있다.



하이텔 Web서비스와 네스케이프 인터넷의 이용이 날로 쉽고 편리해지고 있다.

신의 음성이나 통화상, 사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처음 동작에 인터넷이 유행처럼 알려졌을 때, 수많은 이들은 그 어려운? elm같은 웹상에서의 각종 명령어들로 집약된 전자메일 프로그램들을 써야만 했다.

‘네스케이프를 이용 전자우편 보내기’

- 1. 네스케이프를 가동시킨다. (네스케이프를 두 번 클릭만 하면 가능.)
2. 네스케이프 창의 제일 오른쪽 아래의 편지봉투 아이콘을 클릭한다.
3. 전자메일창이 뜨고, 이미 사용자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 패스워드를 물어 볼 것이다.

6. Out Going Mail[SMTP] Server란에 자신의 인터넷 서버주소를 적는다. (인터넷 서버 주소란, 자신의 인터넷 메일 주소에서 @ 뒷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7. In Going Mail[POP] server란에 자신의 인터넷 서버주소를 적는다. (위의 부연참고) (여기서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나가는 경우, 어떤 서버의 도움으로 편지를 전송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들어오는 경우는 편지가 어떤 서버를 통해 들어올 것인가를 뜻한다.)

8. 대개 In going 과 Out going는 같게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op user name란은 자신의 아이디를 적어 주면 된다. 참고로, 그 아래에는 메일을 확인하고 자신의 계정에서 그것을 지울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 선택해 볼 수 있다.

9. 그리고 다시, 메뉴의 Identity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적절한 내용을 적는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편지 주소와, 응답 편지 주소를 적어 주면 된다.
10. 그리고 다시, 메뉴의 Organization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remember passwd란의 체크를 없앤다. (물론,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체크를 해두면 편리하다.)

11.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은 메일 세팅을 모두 끝낸 것이다. 학교내의 인터넷에 연결된 대다수의 컴퓨터들이 공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 컴퓨터들을 쓸 때마다 이러한 세팅을 확인, 반복 해주면 된다.

12. 다시 예전의 메일창으로 돌아오면, mail to라는 아이콘을 클릭한다. 이렇게 하여 메일 보내기 창이 뜨고, 받는 사람의 인터넷 아이디와 편지 제목 등을 기입하고, 그 아래 내용을 적으면, 편지 작성이 완료된다.
13. attachment화일 보내는법: 메일 보내기창을 보면, 메일 주소 아래, attachment라는 아이콘이 있을 것이다.

14. 이렇게 하여 작성된 편지는 send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된다. 전송될 때, 자신이 지정해 인터넷 서버로 접속되는 것을 화면의 왼쪽 하단에서 볼 수 있다. 전송이 다 되었을 경우, 메일 창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 간혹, 편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니까, 메일창이 갑자기 사라졌어라고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경우는 편지가 너무나 빨리 전송이 되어, 메일창이 금방 사라져 버린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따라잡기 마무리를 하며 '날로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본지에서는 기획 시리즈로 인터넷을 4회에 걸쳐 연재했다.
1. '인터넷 보고 실태'
2.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3. '도서관에서 인터넷 서핑'
4. '전자우편 배우기'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이과대 소모임 Solver Web Master 정성욱(물리3)군에게 감사한다. (편집자)

방법이기에 말이다. 그리고, 편지를 받거나 보내게 되면, 그 편지는 자동으로 네스케이프의 inbox와 send에 저장된다. 그러므로, 편지를 사용후 사생활에 관련이 된 것은 가급적 지워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sciver1.dongguk.ac.kr의 ip주소는 203.253.134.211이므로, http://203.253.134.211로 접속이 될 경우, (sciver1.dongguk.ac.kr라는 이름으로는 안되고.) DNS 서버가 다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도메인 네임으로 교의 서버접속이 되길 경우, 교의의 유명한 사이트의 ip번호를 통해 웹 접속을 시도해보라.

5. 집에서 공짜로 인터넷 이용하는 방법!! (전화비는 책임 못짐.) sciver2.dongguk.ac.kr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sonnim의 아이디로 자신의 영문 이름과 단과대 및 학과와 3가지 이상의 희망 ID를 기재하여 nlsal@sciver2.dongguk.ac.kr로 편지를 하면 계정을 만들어 준다.

6. '전자우편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것' 팁1: 웹에서 교내 홈페이지 접속이 느릴 경우 http://proxy.dacom.co.kr 8080으로 프락시를 걸어주면, 훨씬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프락시 설정은 이전 동대신문 인터넷 강좌 참조.)

7. 프락시 사용자가 많은 경우 오히려 더 느릴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프락시 설정을 해제하여 준다.
팁3: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서버의 주소는 IP 주소를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DNS서버는 과부하 및 다운이 잦으므로,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이 안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8. 학교 네트워크 이용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IP번호로 웹 접속을 시도하여 보라.
예를 들어 sciver1.dongguk.ac.kr의 ip주소는 203.253.134.212가 될 것이다. 더 자세한 방법은 P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독자가 참고로 알아 두길 바란다.

9. 집에서 공짜로 인터넷 이용하는 방법!! (전화비는 책임 못짐.) sciver2.dongguk.ac.kr에 자신의 계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sonnim의 아이디로 자신의 영문 이름과 단과대 및 학과와 3가지 이상의 희망 ID를 기재하여 nlsal@sciver2.dongguk.ac.kr로 편지를 하면 계정을 만들어 준다. 초기 패스워드는 12345로 동일하므로, 요청한 아이디로 하루가 지난후 접속을 시도해보면 된다. 물론, 접속을 하면 자신의 웹페이지로 접속을 하여, 3년(sciver)을 선택한 후 자신의 id를 적고 약간 기다리고 나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웹페이지로 오게 된다. 거기서, "ppp"라고만 치고 엔터를 하면, 이상한 문자들이 지나갈 것이다. 그때, F7키를 누르면 전화접속 네트워크 접속이 된다. 그러면 웹을 사용하면, 공짜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10. 웹에서 교내 홈페이지 접속이 느릴 경우 http://proxy.dacom.co.kr 8080으로 프락시를 걸어주면, 훨씬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프락시 설정은 이전 동대신문 인터넷 강좌 참조.)

11. 프락시 사용자가 많은 경우 오히려 더 느릴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때는 프락시 설정을 해제하여 준다.
팁3: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서버의 주소는 IP 주소를 기억해 두면 편리하다. (DNS서버는 과부하 및 다운이 잦으므로,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이 안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2. 학교 네트워크 이용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선 IP번호로 웹 접속을 시도하여 보라.
예를 들어 sciver1.dongguk.ac.kr의 ip주소는 203.253.134.212가 될 것이다. 더 자세한 방법은 PING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독자가 참고로 알아 두길 바란다.

Advertisement for SILLA construction materials. Includes text: '내일을 약속하는 기업, SILLA', '1967년 창립 이래 30년, 그동안 원양어업(수산물어획 및 수산물가공식품) 섬유사업(섬유제품 세계수출) 건축자재사업(ALC생산 및 건축자재 프로젝트) 등 일찍이 사업다각화를 실현한 내실있는 성장기업으로, 21C 초우량기업으로 향한 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and '신라교역주식회사' logo and address.

◇ '96 문학의 해' 돌아보며

정체성에 빠진 시대의 이정표 문단 안팎의 개혁으로 다시 태어나야

96년은 정부가 제정한 소위 '문학의 해'이다. 문학의 기쁨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문학의 해라는데 필자는 한마디로 "이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문학 여건이 열악한 상태이고 우리의 문학 현실이 배급주의와 물질만능에 놀려 기를 펴지 못하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다. 그런데 하필 소위 '문학의 해'로 지정된 96년도에 문단에서는 새로운 문학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원주의적 목소리만 내고 자기 정체성에 빠져버렸으며 뜨거운 이슈나, 해가 뜨는 정열적 열기조차 식어버려 문단 안팎의 관심을 잃었다.

거기다 전인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비문학적 스크린 문화의 발달로 96년 할래는 문학의 기쁨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해가 되어버렸다.

주목받은 외부적 행사조차 없는 이 지리멸렬한 소위 '문학의 해'에 '정열적 외설시비 파동'은 우리들에게 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인간의 정신을 심판한 것이다.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외설시비에 휘말려 출판사측이 작품을 긴급히 회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인신구속 운운 등이 불거져 나온 것에 참으로 비애감을 느꼈다.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여 그의 작품이 시대 정신의 판단에 의하여 급서로 묶이는 것은 현행법의 피치못할 발발이라고 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작가의 인신구속은 전부당 만부당 한 소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대에 다수의 시인, 작가들은 오해와 편박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 항상 그 시대 정신보다 앞질러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래 다수의 대중들은 이 앞서 가있는 시인, 작가들의 정신에 조조해하고, 불안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위정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들을 탄압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사건들로 미루어 볼 때 여기서 사족을 붙인다면 장정



일씨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너무 솔직하고 투명한 인어구사자 누군가(또는 어느 계층의)부아를 치벌어 오르게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 현행법의 골레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 개인적으로 이종직 작자와 부당할 현실의 끊임없는 모순이 시인, 작가들

문단 내부적으로 일러와 불쾌이 더이상 없어야 하고, 문인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격조높은 작품이 일반대중들에게까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움직임에서 일하는 수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정신문명의 고귀한 전통임을 자각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시인, 작가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만의 고집적인 정신세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이 현실과 결합하여 당대에 문필로 인기를 모으는 문인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있다고 생각한다.

각설하고 96년 '문학의 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유감입니다' '이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정부주도의 '문학의 해'가 처음부터 무슨 큰 의미를 가졌겠느냐만, 문학이 한 시대의 거울이요, 내일을 향한 이정표임이 틀림없기에 문인들은 더욱더 저절하고 아름다운 예술혼과 창작력으로 더욱 매진하여야 한다.

저를여가는 96년 소위 '문학의 해'에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참으로 '미안하고 슬프다'

이종림
(무역학과 90학·시인)

달 하나 전 경애

선택적인 삶을 바라며



학기말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시험때문에 기분이 무거울지도 모르지만 나도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우울하다. 학생들의 얼굴을 때 울리면서 성적을 매기는 일이 곤혹스럽기 때문이다. 교단에 선지 겨우 3년째인 내가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익숙해지지 못해서인지, 소심한 성격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처음으로 학생들을 대했을 때, 학생마다 다양한 개성과 생령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느꼈다. '학생들'이라는 집합체가 아니라 여러 개인으로서 내 머리에 입력된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각 개성을 살리고 맛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다. 내가 가르치는 일반어화나 작문은 그러한 삶의 수단이며 결코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성적이라는 것은 또 얼마나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가. 속도 정도를 객관화시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있지만 경쟁 사회라는 틀 속에서는 사람 자체에 대한 우열 평가로 이어지는 측면을 면하기 어렵다. 상대 평가는 특히 그렇다. 그래서 성적을 매긴다는 것이 내 의도와 무관하게 경쟁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되어버린 현실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이다.

대학생으로 지내는 시간은 학생들이 자립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고등학교시절까지 사회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 연습의 장이라고 할까.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지내느냐,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각자가 생각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집을 나왔다. 경제적 자립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 대신에 나의 세계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이 꼭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나는 주어진 공부를 무조건 따라하고 좋은 학생을 얻기 위해 쫓겨가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공부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할때도 있지 않나?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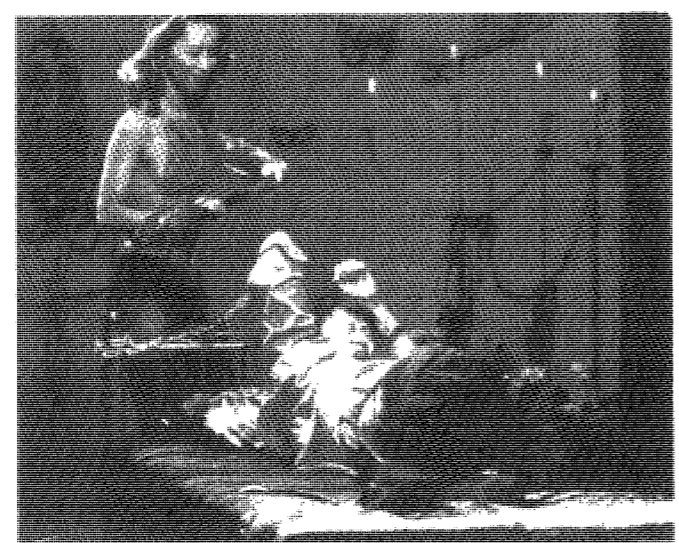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이것은 의외로 어렵다. 나도 모르게, 또는 남이 하나까라며 무심코 행동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주적인 선택과 거기에 따르는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주적인 인간들이 현재의 경쟁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아마시타(山下) 문과대 일어일문과 교수

◇ '다매제시대의 영상물 심의' - 본교 김용호 교수 논문중심으로

'편성 등급제'와 '프로그램 등급제' 제시 세계 공통적 추세·긍정적 평가

지난 10월초 영화에 대한 정부기관의 사정심의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 판결은 곧 음반과 비디오 사정심의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근래에는 '공중파와 케이블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정심'에 대한 부분까지 논란을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5일 중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유혁인)가 '다매제시대의 영상물 심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논의를 끝냈다. 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본교 김용호 교수(신문방송학)의 논문을 중심으로 '영상물 심의'에 대한 전반을 살펴본다.



텔레비전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공보처장관이 임명권을 갖는 중합유선방송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바람직한 심의제도의 방안

김용호 교수는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두가지의 안을 제시한다. 송신자의 자율규제 방법인 '편성등급제'와 시청자가 스스로 자율적인 규제를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급제'가 그것이다.

'편성등급제'는 말 그대로 요일별, 시간대별 시청자 구성(어른과 아이, 남녀의 비율 등)과 시청자 크기(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있는가)를 조사해 주시청 계층에 역기능적 프로그램 방영시에는 감정을, 순기능적 프로그램을 방영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총점으로 따라 규제를 두는 '총점관리방식'이다. 하지만 등급제와 등급시간대 결정은 일차



◇ 사진은 폭력·선전성물 지나치게 부각해 시비를 불러일으킨 '연애가 돌아올때' 화려한 휴가들



적으로 방송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합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매체편성상의 일관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매체간 이해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힌다. '프로그램등급제'는 텔레비전 수

상기에 'V칩'이라는 보조적 장치를 부착하는 기술적 방법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부적당한 폭력물이나 선정적 등의 정보를 입력, 송신자 측에서 '볼 것'과 '보지 않는 것'을 자율적으로 차단하는 장치.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선 판매되는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V칩'을 부착하도록 제도화해 실행중이며 송신자와 수신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현재 가장 앞선 규제 기술이다. 그러나 김교수는 이런 시청자 차원의 자율규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앞서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결정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프랑스의 예가 바로 그런 경우다. 국가방송자문위원회가 프로그램의 등급을 정하고 각 방송사가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를 화면에 내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중간단계의 자율심의제도를 지난달 18일부터 실시했다.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는 1등급, 어린이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프로는 2등급, 12살 이하 시청금지 프로는 3등급, 밤 10시30분 이후에만 방영될 수 있는 16살 이하 시청금지 프로는 4등급으로 분류되고, 5등급 프로는 방영될 수 없게 된 것이다.

통합방송위원회 방송심의에 대한 제안

케이블텔레비전과 지역민방의 도래, 그리고 통신과 각 매체간의 융합 등 매체의 급격한 증가로 방송프로그램과 매체에 대한 세밀한 심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장면심의의 모든 영상물을 위한 회심의방식으로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교수는 이에대해 업계나 방송사 자체에 의한 자율심의를 점차 확대하고 그 결과를 외부 심의기관이 심의결과중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재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 공부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할때도 있지 않나? 그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경쟁으로 인해 폭력성과 선정성 짙은 프로그램을 앞다투어 내보내고 있는 방송사들의 행태에 비추어 프로그램등급제의 실시는 아직 효과를 거두기는 이르다 방송전문가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김교수의 '다매제 시대의 영상물 심의' 주제발표논문은 앞으로 공중파와 케이블, 또는 정적심의의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자율심의의 도의 폐해, 즉 사정심의로 인해 청소년들의 불관리를 제한한다거나, 기술적 장치를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적 문제, 그리고 시청률

97학년도 전자계산 2년과정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1,200명 남·여(주·아)
- 전형방법: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수능시험과 무관함)
 - ▶특별전형: 서류전형
 - ▶일반전형: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특별전형: 1997. 1. 27(월) - 31(금)
 - ▶일반전형: 1997. 2. 17(월) - 27(금)
 - (토, 일요일도 교부/접수함)
 - ▶접수장소: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교학과 09:30 - 19:00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응시자격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입학원서(본원소정양식) 1부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
- 특징
 - 가. 오주권슬랜드 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
 - 나. 뉴질랜드 링컨 국립대학 컴퓨터공학과 3학년 편입예정
 - 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기사2급 응시자격부여
 - 라. 졸업후 취업추진(졸업생 97% 이상 취업)
 - 마. 재학생 전원 데이터 1D부여
 - 바. 국가기술자격증 기사2급 취득시 대학졸업학력 독학사 시험 4단계중 2단계 면제
- 교육환경 및 실습시설
 - 가. VAX/6310 중형컴퓨터, PC LAN구성
 - 각 실습실 586 multimedia PC 교육시설
 - 나. 각 실습실 최첨단 통신시설 장비구축
 - 다. 초고속 전용회선(T1) 및 영상강의 시스템
 - 라. 시청각교육실 및 자율실습실 상시운영
 - 마. 성적우수, 가사, 보훈, 근로, 다양한 장학금지급
 - 바. 대학원퍼스내에 위치한 쾌적한 교육환경 및 다양한 편의시설
 - 사. 총학생회 및 다양하고 재미있는 학생동아리 모임
 - 아. 300여석의 도서관과 15,000여종의 전공 및 교양도서를 보유한 열람실
- 입학문의
 - ☎ 260-3522~3, 264-0502, 260-3598, FAX: 264-0502
 -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천리안 매직콜: ZPD001, ZPD003
 - e-mail: ZPD003@chollian.dacom.co.kr
 - 온라인통신학교: GO DUCSI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97학년도 전산/정보경영자과정(3기)모집

- 모집인원: 주간1반, 야간2반(120명)
- 모집구분 및 교육기간

구분	강의요일	강의시간	교육기간
주간	주2일(화·목)	14:00-17:00	4개월(16주)
야간	주2일(화·목)	18:00-21:30	3, 4, 5, 6월
- 모집대상
 - 기업체 및 공공기관 경영자, 관리자
 - ▶공무원, 언론인, 정치인, 군인
 - ▶전문직 및 자영업자 경영자, 관리자
 - ▶주부 및 여성전문직 종사자
- 원서교부 기간 및 접수장소
 - ▶1997. 2. 10(월) - 2. 28(금) 09:30 - 19:00
 - (토, 일요일도 교부/접수함)
 -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교학과
-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선착순모집(등록선착순)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교육과정 특징
 -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교육
 - ▶관리자 및 경영자를 위한 최상의 교육환경
 - ▶PC기초에서 멀티미디어, 인터넷까지 실습위주의 수업
 - ▶초고속 통신망(T1)을 이용한 최첨단 컴퓨터시스템
 - ▶비즈니스를 위한 최첨단 영상강의 시스템
 -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교재
 - ▶최고의 전문교수진 및 실습강사에 의한 개인지도
 - ▶586 multimedia PC를 이용한 1인 1대의 철저한 실습교육
- 입학문의
 - ☎ 260-3522~3, 264-0502, 260-3598, FAX: 264-0502
 - 주소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 천리안 매직콜: ZPD101, ZPD103
 - e-mail: ZPD103@chollian.dacom.co.kr
 - 온라인통신학교: GO DUCSI

동국대학교 전자계산원

컴퓨터 통계 특강

과목	일시	기간	모집인원	교재비
윈도우즈용 한글 3.0b와 인터넷 사용법	오전 9:30~12:30	5일간	선착순 50명	수강료 포함
엑셀 사용법	오전 9:30~12:30	5일간	선착순 50명	수강료 포함
웹 홈페이지 작성법	오전 9:30~12:30	5일간	선착순 50명	수강료 포함
유닉스와 E-mail 사용법	오전 9:30~12:30	5일간	선착순 50명	수강료 포함
JAVA	오전 9:30~12:30	10일간	선착순 50명	별도 구입
Visual Basic 4.0	오전 9:30~12:30	10일간	선착순 50명	별도 구입
	오전 1:30~4:30	30시간	4000원	

수강대상: 동국대학교 재학생(학생증 필히 지참)
 특강장소: 회화관 1층 컴퓨터실습실GC
 접수장소: 회화관 1층 사무실(문의전화: 260-3852~3)
 접수기간: '96.12.9~12.20(오전10시~오후3시)
 (토, 일요일 제외)

컴퓨터교육원

방학중 외국어 특강 안내(1, 2차)

과목	영어회화 (초급/중급/고급)	TOEIC	Listening (APKN)
강사	본교 영어회화 전담	본교 영어회화 전담	본교 영어회화 전담
기간	외국인 교수	외국인 교수	외국인 교수
시간	1차: '97.1.6-131 2차: '97.2.3-228	1차: '97.1.6-131 2차: '97.2.3-228	1차: '97.1.6-131 2차: '97.2.3-228
수강료	50,000원	30,000원	30,000원
강의실	외국어교육원 강의실	Lab B실	Lab B실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1동 2층)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1동 2층)	외국어교육원 (동국관 1동 2층)
접수	'96.12.9-12.13	'96.12.9-12.13	'96.12.9-12.13
기간	(1, 2차 동시접수)	(1, 2차 동시접수)	(1, 2차 동시접수)

외국어교육원

기원학사문제 5일 재협상

사생들 거취 논의에 집중될 듯

기원학사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기원사생들과 학교당국과의 협상자리가 마련됐으나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기원학사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손정일·불교 4이하 비대위)는 앞으로도 비상앞에서 '수령도량 기원학사 사수'와 불교대학 장기적 발전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웅변경진봉행 등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기원학사 부지반환 요청을 지난 25일 접수한 상태로, 이후 대책회의를 개최, 단거, 장기적 대안을 기원사생들에게 제시했다. 학교당국은 이 자리에서 불교학부 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해 제3캠퍼스 건립 전까지 거주시키는 것과 97년도 이후에는 기원학사 신임생 선발을 불거하는 등의 단거적인 대책과 일산에 대규모 기원사 건립이라는 장기적인 대책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학교측은 지금까지도 대책마련에 머뭇했으며 이번 문제를 기원학사만의 문제라만 보지 말고 불교대의 위상과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하며 건학이념을 중요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적표 30일 발송

학적과(과장=안준옥)는 오는 30일 96학년도 2학기 성적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발송후 1월6일부터 10일까지 성적정정기간을 가지나 이 기간에는 공시한 성적과 다를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성적공시기간을 이용하여 성적을 확인하고 정정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교수들은 성적공시후 23일까지 컴퓨터 처리용 성적기록표 및 성적등급별분포 인원표를 교학부에 제출해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다.

한편, 주수 변경신고율 하지 않아 성적표, 등록금, 경고조치 등을 전달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수 변경시에는 즉시 각 단과 교학부에 주수조정신청서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생리대 무인판매

제11대 총학생회(회장=서정은·역교4이하 총여)와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 이하 생협)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학내 복지매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생협 출범을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모니터링은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복지매장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대상매장은 직영매장인 다량관 학생식당, 동국관 학생·교수식당, 보린수, 이리수, 서점, 자판기, 해화관 해점과 임대매장인 다량관 학생식당, 문화관 그릴, 명진가든, 동국관 휴게실, 잡화점, 안경점, 문구점, 사진관, 기화사, 이발소, 컴퓨터점,

오징어와 더불어 학생들이 보다 많은 책을 빌릴 수 있다는 이점에 높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에 한 관계자는 "아직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못해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지만 학생들이 도서 대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혀 학생들의 도서관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도서수 5권으로 증가

대출·반납 전산화 20일부터 가능

도서관(관장=정병조·국민윤리)은 학생들 1인당 도서대출할 수 있는 권수를 오는 20일부터 3권에서 5권으로 늘려 실시한다.

이는 VINTAGE LAS(도서관 검색 프로그램) 설치후 도서의 대출·반납 전산화가 향상되어 대출권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1학기에 받고 총학생회가 건의 했던 '1인당 도서대출 권수를 늘려달라'

복지매장 모니터링 실시

본교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 이하 생협)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개월간 학내 복지매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생협 출범을 앞두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모니터링은 교수, 직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향후 복지매장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대상매장은 직영매장인 다량관 학생식당, 동국관 학생·교수식당, 보린수, 이리수, 서점, 자판기, 해화관 해점과 임대매장인 다량관 학생식당, 문화관 그릴, 명진가든, 동국관 휴게실, 잡화점, 안경점, 문구점, 사진관, 기화사, 이발소, 컴퓨터점,

복학·재입학·휴학원 접수

학적과(과장=안준옥)는 복학·재입학원서를 내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접수받는다. 필요한 구비서류로 일반복학원서 1부, 군복학자 중 기전역자일 경우 복학원서 1부와 주민등록 초본(전역일자 기재), 전역예정자일 경우(97.4.1이내 전역 가능일자)복학원서 1부, 전역예정자 각서 1부가 필요하며 재입학원은 재입학 원서 1부가 필요하다.

또한 97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원은 내년 3월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으로 신청자격은 96학년도 2학기 재학생이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도서관 철야개방

기말고사 기간인 요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은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는 9일까지 1층 열람실을 철야 개방한다.

지난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보 통정도 처음 철야 개방한 바 있는 도서관측은 그 당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별 문제가 없었다고 실 시배경을 밝히고 있다.

열람과 최봉주계장은 "지금의 시험기간 철야개방은 아직 시험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고 종강고사 기간에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복위 겨울특강 실시

실력 따른 구분강좌 개설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서동욱·무역4 이하 학복위)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겨울방학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는 12월 21일까지 구내서점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다양관 지하 학생복지위원회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구분	과목명	시간장소
시작 (Listening)	거로 토익, 시스템 토익	12:00~13:30(K 304)
다지기 (L/C & R/C)	시사 엘리트 종합 토익, 다학원 IVY토익	10:00~11:30(K 308)
고득점반	시사 토익 특별반 (Speed Up+Super Elite Toic)	11:50~13:30(K 208)
틀기	ECC AFKN	10:00~11:30(K 208)
토 풀	아카데미 신경향 토 풀, 시사 신경향 토 풀	10:00~11:30(L 401), 14:00~15:30(K 308)
독해기초	고려원 영어 순해	10:00~11:50(K 309)
독해응용	해럴드 사설	10:00~11:30(K 304)
일본어	일본어 벵크	10:00~11:30(K 307)
영어회화	Headway (Pre Intermediate-초급)	10:00~11:20
	Intermediate-중급)	11:30~12:50
		13:00~14:20
		14:30~15:50

학생수첩 9일 배포

극장·버스노선 소개 등 내용 보강

97년도 학생수첩이 오는 9일부터 과학생활실로 배포, 학생들이 받아들 수 있게 된다.

학생수첩대금을 지불한 7천6백명 을 대상으로 제작된 학생수첩 8천 부가 1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내년 신입생과 복학생들은 97년도 3월 경에 받을 수 있다. 또한 특기생과 전역장학생은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배포물 수첩에는 극장 위치소개, 버스노선, 우편번호, 보건소 및 학생생활연구소 소개 등의 내용이 보강됐으며 결표지와 크

기는 96년도 수첩과 변함이 없다.

고시 장학생 선발

6일 원서접수 마감

계산고시학사(사감=이순용·법학)는 오는 14일에 재학생 및 복학생을 대상으로 '97학년도 1학기 고시장학생'을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지난 11월27일부터 계산고시학사 사감실에서 오는 6일까지 받으며 복학생이면 경우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총학 선거마무리

제13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김태호·철학과 석사과정4)정·부회 장 선거에 단독출마했던 문안식(사학과 박사과정 2)·김남명(경제학과 석사과정 1)후보가 당선됐다.

문안식·김남명 후보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선거에서 경주 함의대·의대를 제외한 전체유권자 1천27명중 총투표자 1백72명(16.75%)으로 찬성 1백52표(88.37%), 반대 17표(9.99%)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학과소식

정치외교학과

제51대 정치외교학과(회장=함인수·정의3)에서 사운회를 개최했다. 지난 28일 오후 7시에 있었던 이번 행사는 4학년 졸업준비위원회 주체로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관 그릴에서 개최했다.

제51대 정치외교학과(회장=함인수·정의3)에서는 지난 26일 학생회 장 선거에서 함정석(정의2)군이 당선됐다.

건축·토목공학부

제2대 건축·토목공학부 정·부회 장 선거에서 안정훈·신태홍씨가 67.1%의 투표율에 72.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아간강좌 반도체학부

제3대 아간강좌 반도체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배민호군이 81%의 투표율에 88.9%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아간강좌 무역학과

제15대 아간강좌 무역학과 학생회장 선거에서 이준호군이 55.8%의 투표율에 97%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아간강좌 경상학부

제2대 아간강좌 경상학부 정·부 회장 선거에서 신동은·김태경씨가 정재수·안나니조를 제치고 당선됐다. 71.8%의 투표율에 65.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외전무대

극과 극

○...“아이 추워!” “아이 더워?”

요즘 학교안에서 들려오는 엇갈린 투정소리. 이는 지난 20일 강의실과 도서관 열람실에 난방기가 되면서부터 들려 온다는데,

한 쪽에는 너무 온도가 높아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고, 한 쪽에서는 너무 추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게다가 정작 필요한 오전 시간에는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이에 한 학생이 말하기를 “동태로 오세요. 차비 4백원으로 4개월을 못 볼 수 있을테니까요!”

취도 못먹어?

○...강의실 하나에 쓰레기통 하나,

강의실에 쓰레기통 하나 없어서 빈강통, 종이컵, 휴지 버릴 곳 없다고 투덜대던 학생들 깨끗한 쓰레기통에 반색을 하더니 그들의 불평은 사라졌지만 변화가 없는 모습은,

책상과 책상 사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에 자기 자리 찾기 못하는 쓰레기통,

이에 회전무대자 한마디, “취도 못쓰는 통약인이며 반성점함시다”

본문 방과

○...통약 곳곳에 똥 침입자(?)

다름아닌 각종 기관을 사청해서 설문조사를 요구한 다음 나중에야 책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말마나 열성적으로 강의(?)를 하는지 속는건지, 속아주는 건지 당한 사람이 꽤 많다고 하는데,

시간 투자해서 낚는 거라곤 책정구사본,

이에 회전무대자 왈 “책은 서점에서, 설문조사는 리서치기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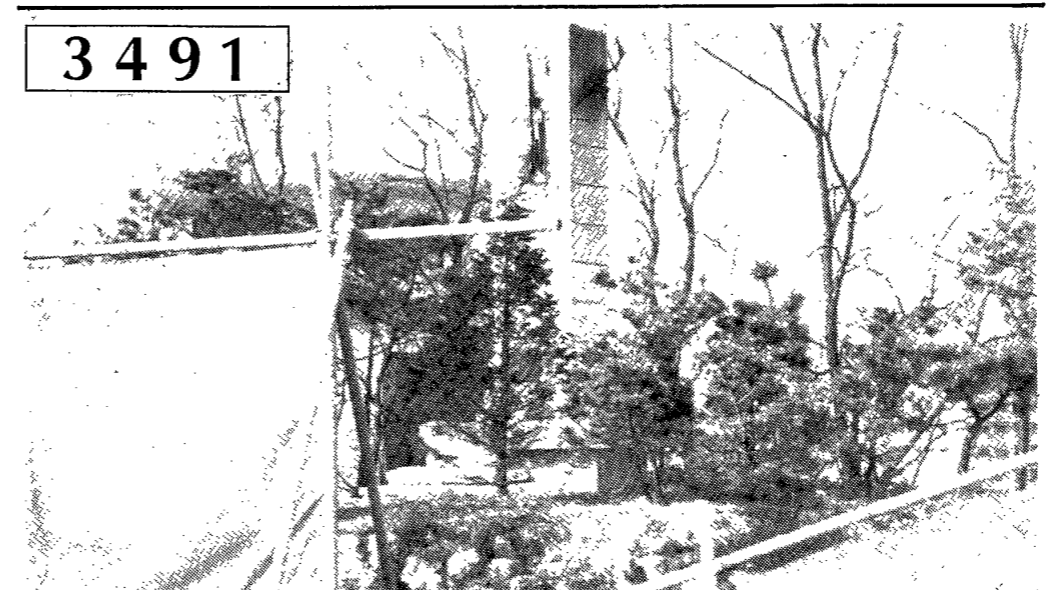
자랑스런 꼴찌

○...올해 열린 '전국 물가 뛰기대회'에서 실패가 꼴찌를 했다고,

올초 주최측의 강한 견제와 규제에 기록이 저조했던 각 대표 물가들이 연말에 들어 꾸준한 노력(?)의 결과 높은 기록 향상을 보였다 하니,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선수들의 분발에 환호와 박수보다는 아쉬움,

꼴찌를 한 실패 선수 한마디 “3년만에 3cm면 열심히(?) 한거예요”



◇ 보고 싶어... 만해광장에 세워진 4·19기념 동우탑. 공사도 끝난 지금까지도 안전시설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 동우탑의 제모습 그대로 보고 싶다. (이태훈 기자)

수강신청방법 변경

1997학년도부터 수업의 규모를 정형화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 시키고, 학기초 수업운영의 조기안정 및 명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방법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함.

1. 수강신청의 시기
수강신청의 시기는 학기말에 다음학기 수강신청을 하며, 수강신청정정은 개강후 1주일 이내(소정기간)로 한다.
※9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기간: 96.12.4(수)~12.6(금)
정정기간: 97.3.5(수)~3.7(금)

2. 수강신청의 방법
수강신청은 종전의 OMR카드를 이용한 방법에서 LAN으로 연결된 교내의 실습실, 연구실 등의 모든 PC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3. 수강신청의 제한
1)최초수강신청시 교양필수과목, 실험실습교과목, 회화교과목, 교양선택교과목 등에 대하여는 반 편성 기준 또는 실험실습실, 강의실의 수용규모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한다.
2)수강신청정정기간에는 전 교양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며, 교과목의 수강제한인원 범위 내에서만 수강신청 정정이 가능하다.

4. 유의사항
1)수강신청정정기간에는 전 교양교과목(전공교과목 제외)에 대하여 수강인원을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최초 수강신청기간에 필수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2)수강제한인원 범위 내에서만 정정(교과목 추가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97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은 종전과 같이 OMR카드를 이용하여, 수강신청 정정부부터 PC를 이용하므로 착오없이 바람.
4)PC를 이용한 수강신청 메뉴얼은 정정기간전 별도 제작 배포할 예정임

교무처장

전과(부)시행 공고

1. 원서접수: '97. 2. 19(수)~21(금)
2. 전과허가 발표: '97. 3. 3(월)
3. 전과대상학과: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경찰행정학과 제외)
4. 전과제한: 캠퍼스간, 야간에서 주간학과로, 한의(예), 의(예)전과는 불허
5. 지원자격: 1학년과정을 수료, 총성적의 평균 평점이 3.0이상인 2학년전공예정자
6. 전과허용인원: 학과 입학정원의 20%
7. 접수처: 전과(부) 회합학과(부)소속 교학과
8. 구비서류
가. 전과원서 나. 재학증명서
다. 성적증명서(전과서류제출후)
라. 자기소개 및 학업이수계획서
9. 전과(부)자의 교직신청: 전과후 교직과정 이수 신청시기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10. 문의처: 본관 3층 학적과(TEL 260-3039, 3040)

교무처장

일반휴학원접수 공고

1. 신청기간: '97.3.4(화)~3.7(금) 4일간
2. 신청자격: '96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
3. 신청대상자: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4.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
5. 신청접수: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소정양식)
6.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은 계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일반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말로 제적됨.

교무처장

복학·재입학원 접수공고

1. 복학·재입학원서 접수기간
'97.2.17(월)~2.19(수)
2. 접수장소: 교무처 학적과(본관3층)
3. 구비서류
가. 일반복학자-복학원서 1부
나. 군복학자
1)기전역자
① 복학원서 1부.
② 주민등록 초본(전역일자 기재)
2)전역예정자('97.4.1이내 전역가능한 자)
① 복학원서 1부
② 전역예정자 각서 1부
다. 재입학자-재입학 원서 1부

교무처장

영상매체비평

◇96영화계 정리- 대중상·영화제·검열·비리를 중심으로

모순과 비리가 뒤얽힌 난장판

한해를 정리하는 영화에 관한 글은 '다사다난했던...'으로 시작하여, 대표작들을 다시 간추리고 아울러 영화계 안팎을 정리하면서, '새 해에는 더욱 발전...'으로 마무리 짓는 글을 쓰고 싶었으나, 갑작스럽게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고 말았다. '꽃잎', '학생부군인위', '돼지가 우물에 빠진날' 등의 해외 영화제 수상 소식을 기쁘게 전하며, '은행나무 침대'나 '투캅스 2'의 흥행을 그나마 다행스러워 하기에 '한국영화계'는 그야말로 일축일발의 위기 상황이다. 작품을 통해 영화에 대해 말하는 것을 소소한 잡담으로 여기는 써가져 없는 태도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변명의 여지를 구할 것이리라.



◇사진은 영화 사진검열 위원회 결정 이후 현 판정 이후 지난 15일 열린 '공연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사진심의제에 관한 공개토론회.

첫번째, 대중상 스캔들 올해 34회를 맞는 대중상 영화제는 해마다 종소리에 잠음이 섞였지만 8월에 이르러가자 '노이즈가튼'이었다. 개봉도 되지 않고 예심과 본심을 다른 프리트르로 제정한 '애니깽'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것이다. 무슨 얘긴가 하면 '애니깽'은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과거의 민족수난사를 불러들인오래를 통합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안기부가 예산까지 집행하고 합동영화사 대표 극장형씨가 제작했다고 총무부의 마지막 황제인 그가 대중상이라는 왕관을 씌워준 영화이다. 여기에서 '소수'의 영화인을 위해 존속하는 대중상에 이의제기가 가해진 것이다: 국가-기구(Apparatus)-이데올로기

그런데 말이다 대중상은 삼성이 10억이라는 돈을 대어 운영한다. 삼성이 수입뿐만 아니라 제작까지 하는 상황에서 대중상의 공정성은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삼성과 대중상의 커넥션은 영화인들이 아닌 삼성 측의 변신으로 끊어졌다. 지난 8월 삼성 측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손을 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상 논쟁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한국 영화계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대기업-두번째, 부산 영화제 성공적이었으나 내년을 두고 보겠다. 소중한 관객들의 재발견이 큰

수확이었고,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영화제에서조차 가위질 당한 필름을 봐야하니, 공판이 '크레쉬'의 상영 제한을 요구했으나 대우가 알아서 자르고 상영했다. 관객-제도-네번째, 영화계 비리 왜 하필이면 이때에? 위원 판결로 사기가 고조되고 새로운 슬로트리가 시작하는 이즈음 한국영화의 두 거를 광정환(합동 영화사-서울극장 대표)과 이태원(태흥 영화사 대표)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7년 전의 씨네 하우스 방화사건이 불씨가 되어 대중상 영화제 수상자 선결과 직배영화 배급과정을 둘러싼 르비, 외화 수입 과정과 극장 운영에 있어서의 탈세 비리가 총무부(기초)의 토착자본, 대기업, 직배사)라는 한국영화계의 구조 개편을 외산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극한 근심에 사로잡힌다: 모순-차중

그러서 난 진흙 속에 핀 꽃을 말하지 못하고 진흙탕에 대해 말할 수 밖에 없었다. 한승희 (본교 대학원 영화학 석사과정)

◇대중음악관 저항의 상품화

사회비판 담은 노래 꾸준한 인기 저항의식, 상업성으로 악용 우려

말소사, 문득 당황한다. 디지털이 화려한 TV쇼에서 성수대교를 노래할 때 나는 웃으면서도 약간 당황했다. 강산에 2집, 뼈따기를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할 바는 없었다. 볼-어름-가을-겨울의 바나나세이프와 패닉의 말을 듣고도 마찬가지로였다. 운동권과 저항적 대중가수들이 행복하게 일처한 자유공연의 성황 소식을 듣고서도 그랬다. 내 의심의 심리 저변에는 다분히 구매의 연한 정서가 깔려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아직 모른다. 저항과 사회비판에 대해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진대, 나는 왜 당황하고 있을까. 찬찬히 생각해본다.

문화관에 미니멀리즘 이미지의 봄이 일어난 지는 꽤 한참이다. 영화에서는 정성일이 그 전범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수많은 영화관들이 딱히 재미는 없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영화관에 들러든 것이다. 문학에서는 더욱 오래전의 일이다. 문학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참비-문학의 실존-순수 구도가 대립했다. 깨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각개전투로 자신들의 문학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영국도 그렇다. 페미니즘 연구, 노래가들이 벌써 오래전에 자신들의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대중음악은? 대중음악관에서의 저항의 상품화를 말하려는 당연히 령의 선포를

들어야 할 것이다. 세상이 엇갈리고 저항하는 금속성의 소리들에 우리가 저항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합당하되, 그것이 어떻게 팔리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할 바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락은 없고 폭발하는 젊음의 마하 어찌구, 락의 정반 호출되고 락의 이미지만 팔리고 있는 참애야 더욱 그러하다. 최루탄 총알한 거리의 구조에서 얼어 있던 저항이라는 단어가 도매금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 패닉의 인터뷰기회가 생겨 이적을 만났다.한참 얘기를 하다보니 불렀던 동대신문에서 창작한 이 원고 생각이 나서 그에게 물었다. "니 앨범을 보면 세상에 대한 목지기라는 생각이 들어. (아, 참고로 그날의 인터뷰는 기획 의도상 동대배의 정서를 담기 위해 반말로 진행했다.) 하지만 니 앨범이 사오십만장이나 팔리나 미니멀리즘이 아니잖아? 요즘 너도나도 앨범에 갖바기 양념처럼 사회비판적인 곡을 하나씩 찍어넣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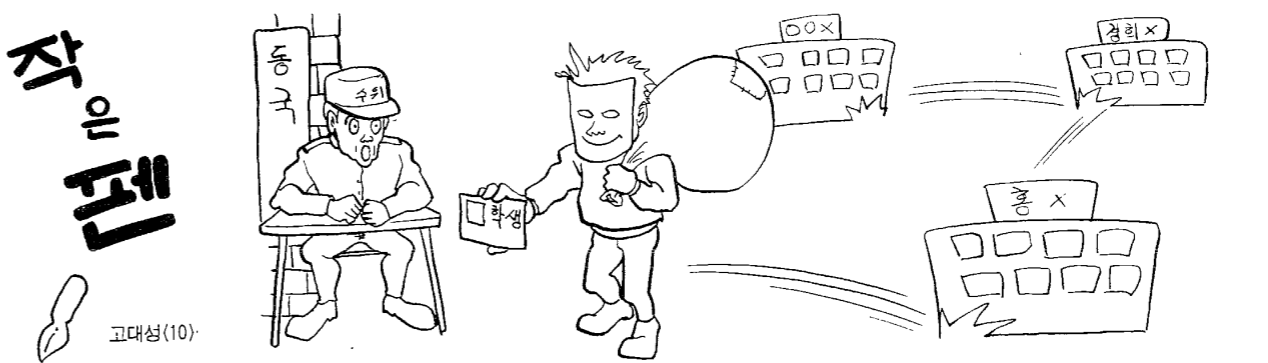
이적의 대답에 전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빛이 비어 그 대로 삼자면 이렇다. "이런 내 앨범에 '달팽이'같은 발라드 곡을 하나 넣었다더라면 백만장 짜리 대박이 터질까라고 사람들이

매아리

보수의 논리

서는 저마다 보수를 주장하는 현상을 두고 구시대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수와 다르다한다. 초기 개혁적 이미지에 반하는 행동을 갖기 사전을 찾아가며 보수-수구로 나누고 '개혁적 보수'나 '보수 중도'나 '조개는 모양이 얼마나 웅성하냐'. <대우 견고해진 보수의 비활은 노동법개정에서도 위대한 의결타기를 하게 만들고 있다. 의도와 목적의 순수성은 차

치해 두고서라도 애초 정명된 개혁의도와 떨어진 것이다. 진정 개혁이라하면 다수국민의 재대로된 삶을 위한 목적을 기초로 해야할 일 것이다. 노-사 담합의 허나나 나눠먹기식 힘의가 최선인안 그들이 잠겨진대서 노동법개정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명백히 이루어져야하는 사안과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사안의 맞바꾸기식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어느쪽에 당위가 있는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낡은것들이 정진없이 드러나는 지금, 보수논리에 둘러싸여 놓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켜 보고 대차인 이런 젊음으로 진보의 물살을 일으키는 어렵다. 예전 한 인사의 고인을 생각해 보라. '젊은이! 진보와 개혁,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가' (삼)



▲지금 나라는 운동 '보수'를 외치고 있다. 정치는 누가 더 보수인가를 가지고 목에 힘을 주며 저마다 국민들 앞에서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라고 주장한다. 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아래 고통은 민족의 상처를 통해 우리가 겪는 불안은 오랜동안 국민들에게 안정을 희구하는 근원이 되어 왔다. 보수정권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때면 이런 근원을 함부로 들추고 해집어 원하는 보수의 논리를 쥐어 짜낸다. 이것이 짧은 시간내 최대 효과를 거둘수 있는 노림수가 시급한 정국을 통해 또 평위를 떨치고 있다. <문민정부는 개혁이란 간판아래 우리에게 그간 억눌려 왔던 자유를 누릴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응케한 이물이었다. 문민 1기의 일기말인 지금 그 신선했던 기대를 무엇이 이렇게 퇴색시켜 만들었는가. 정지에

1997학년도 동국대학교 신입생 모집 (특차, 정시)

교육부 주관 '교육개혁 추진사업 평가'에서 당당히 전국 1위! 다양한 전공, 최고의 강의로 국내 초일류 명문사학 실현! 일산 첨단과학 캠퍼스 조성, 양·한방 종합병원 1000병상건립! 이것이 21세기 초일류 명문사학으로 도약하는 동국대의 모습입니다.

대학	계열	학부/계열/학과	전공	모집정원	특차	정시	합계
서울캠퍼스	문과	인문	철학과	10	42	52	
			인문학부	18	72	90	
		문과	인문학부	20	25	45	
			인문학부	25	25	50	
			인문학부	30	30	60	
			인문학부	30	30	60	
	이과	자연	수학전공	36	144	180	
			물리전공	36	144	180	
		이과	자연	40	40	80	
			자연	40	40	80	
			자연	40	40	80	
			자연	40	40	80	
경상	인문	경영학부	60	60	120		
		경영학부	60	60	120		
		경영학부	60	60	120		
		경영학부	60	60	120		
		경영학부	60	60	120		
		경영학부	60	60	12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115	115	230	
			컴퓨터공학전공	115	115	23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충청	인문	경영학부	72	288	360		
		경영학부	72	288	360		
		경영학부	72	288	360		
		경영학부	72	288	360		
		경영학부	72	288	360		
		경영학부	72	288	36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21	49	70	
			컴퓨터공학전공	21	49	7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19	45	64	
			컴퓨터공학전공	19	45	64	
			컴퓨터공학전공	19	45	64	
			컴퓨터공학전공	19	45	64	
대전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부산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대구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전남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전북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전라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제주	인문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경영학부	115	115	230		
	이과	자연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이과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컴퓨터공학전공	40	40	80	